



# 테러 위험 보험시장의 특징과 전망<sup>1)</sup>

홍민지 연구원

2017년 전 세계 테러 공격 건수는 22,500건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으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은 증가하면서 테러 위험의 유형이 변화하는 추세임. 보험회사도 변화하는 테러유형과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상품 출시를 통해 테러 위험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테러는 예측 가능성이 낮고 발생 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정부가 기금을 통해 민간시장을 지원하고 있음. 다양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려는 고객의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 출시로 인해 2018년 테러 위험 보험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 2017년 전 세계 테러<sup>2)</sup> 공격 건수는 22,500건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으나,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사이버 공격의 위협은 증가하면서 테러 위험의 유형이 변화하는 추세임

- 과거 테러 공격의 주요 유형은 특정 테러 조직이 계획된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테러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로운 늑대’<sup>3)</sup>가 소프트 타깃(Soft target)<sup>4)</sup>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함
  - 테러로 인한 중대한 재산 피해 발생 빈도수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또는 휴대용 무기를 이용한 대량 살상 공격 사건은 증가함
- 또한, 개인과 기업의 기술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리스크는 빈도, 규모, 치밀성 등 모든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음

1) MARSH & McLENNAN(2018. 4), “2018 Terrorism Risk Insurance Report” 내용을 발췌, 요약함

2) 테러란 국가 이외의 행위자가 두려움, 강제 또는 협박으로 정치, 경제, 종교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적인 위력과 폭력 위협을 가하거나 실제로 행하는 것을 의미함(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2017), “Global Terrorism Index 2017”)

3) 특정 조직에 속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테러를 행하는 자(Bakker and De Graaf(2010), “Lone Wolves”, p. 2)

4) 소프트 타깃(Soft Target)이란, 테러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의 개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병원, 학교, 스포츠 경기장, 호텔, 영화관, 식당, 카페 등과 같이 비무장 민간인이 다수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함(Oxford Dictionary; Forest, James J. F.(2006), “Homeland Security: Protecting America’s Targets”)

-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손실<sup>5)</sup>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sup>6)</sup>, 인공지능 기계 등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sup>7)</sup>

#### ■ 보험회사들은 변화하는 테러 유형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총기 난사, 사이버 공격, 배상책임, 평판 손해, 직·간접적 위협, 조직범죄, 행사 취소, 생화학·방사능 및 핵공격 등 다양한 테러 위협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됨<sup>8)</sup>
  - 초기 테러 위험 보험은 테러로 인한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비 물리적이고 간접적인 손실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됨
  - 테러 공격의 수단이 변화하면서 제3자 배상책임<sup>9)</sup>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검토 중에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테러 위협으로 인한 기업의 재산상 손실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한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2017년 미국 회사의 62%가 재산보험과 함께 테러 위험 보험을 구매하였으며 주요 구매자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 부동산 회사인 것으로 나타남

#### ■ 테러로 인한 손해는 예측하기 어렵고, 발생 시 손실 규모 또한 크기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정부 기금을 설립하여 민간 보험시장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 23개국은 법 제정 및 기금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이 테러로 인한 민간 보험시장의 손실을 보전하는 시스템을 갖추
  - 미국은 2002년 테러위험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of Act) 제정 이후 2015년 3차 개정<sup>10)</sup>을 통해 2020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내 테러행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일부 보전함
  - 영국 정부는 테러 재보험 기금(Pool Reinsurance Company Limited)의 보장범위를 올해부터 테러로 인한 간접 손해(인접지역 테러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 지역 평판 손해)와 사이버 테러 공격으로 인한 영업 방해까지 확대함

#### ■ 다양한 테러 공격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려는 고객의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출시로 인해 2018년 테러위험보험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kiri**

5)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손실, 지적재산권 유출, 재산 손실, 영업 방해, 평판 손해 등

6)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간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인프라(박찬국, 용태석(2011. 6),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시장 동향』)

7) JLT Re(2017), "Terrorism (re)insurance: achieving resilience", p. 9

8) JLT Re(2017), "Terrorism (re)insurance: achieving resilience", pp. 13~14

9) 차량을 무기로 이용한 테러가 증가하면서 테러에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제3자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0)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2015